

한국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

정 우 열(경운대학교)

남 흥 범(경운대 박사과정)

I. 머리말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국민총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2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 각계에서는 이론적·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69년 8월 즈음에 경상도 지역이 심각할 정도로 수해를 입어 박정희대통령이 현장 시찰을 하고 있던 중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 1리를 돌아보았는데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이 넓혀져 있고, 지붕이 개량되고 담장까지 말끔히 다듬어져 있었다. 이것을 본 박대통령이 이유를 물어보자 “마을사람들이 기왕에 수해로 쓰러진 마을을 복구할 바에야 좀 더 환경을 잘 가꾸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자진하여 협동하여 이루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박대통령은 농민들의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일깨워 전국 농촌을 신도리 마을처럼만 만든다면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일을 구상하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락이 총동원되어 추진하면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도와주겠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그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데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주력해 농어촌의 초가집과 기와집이 개량 사업을 통해 현대식 주택으로 바뀌었으며,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농촌에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이 도시에서 직장으로 확산됨으로써 새마을 정신이 한국경제 성장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80년대 새마을운동은 도시의 공장과 직장, 지역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새마을 지도자 등 민간조직의 역할이 점차 커졌으며 ‘86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경기를 정부기관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운동의 성격이 기존의 잘살기 운동에서 민간주도의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변모하면서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의 역할이 자원봉사의 기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0년대에는 새마을중앙회가 '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공동체가꾸기를 기본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그린 코리아운동,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스마트 코리아 운동, 살맛나는 공동체를 위한 해피 코리아 운동,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코리아 운동 등 4대 중점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태동에서부터 현재까지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로 하며, 시대적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시계열적 분석¹⁾은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새마을운동의 진행과정을 10년 단위로 설정하고 제1기에서 제4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1970년~1979년), 제2기(1980년~1989년), 제3기(1990년~1999년), 제4기(2000년~2009년)로 나누고, 연구방법은 기존의 사업실적을 중심으로 하고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서술적 분석에 의존하였다. 새마을사업은 축적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내용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이 어렵다. 내용부분은 그 동안 추진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새마을운동의 본질

1.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목표

1)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근면은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선용의 정신을 의미하며, 자조는 자율과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자기 확립의 정신을 나타내며 협동은 효율과 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자기 확대의 정신이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근면을 통하여 절약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주었다.

둘째, 새마을운동은 자조의 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불

1) 김병섭 등(2009: 114~117)은 새마을운동의 발전단계를 1970년부터 1981년까지를 1단계 발전기간으로, 1982년부터 1989년까지는 2단계 발전기간으로, 1990년부터 그 이후를 3단계 발전기간까지를 3단계 발전기간으로 나누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을 곽중무(2009)는 기반조성단계(1970-1973),사업확산단계(1974-1976),효과심화단계(1977-1979),체제정비단계(1980-1989),자율확대단계(1990-1999),글로벌화단계(2000-현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중앙회와 김정호(2007: 60)는 새마을운동의 시간적 구분을 10년 단위로 하여 1970, 1980, 1990, 2000년의 네 가지의 시간적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간 구분은 우리사회의 정치적 변혁기와 환경변화,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진행양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러일으켜 주었다. 자조의 정신으로 스스로 자기의 확립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경제의 위기에 적합한 생활신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게 해주었다. 50년대 한국전쟁, 60년대 경제적 위기, 70년대 오일쇼크, 80년대 정치적 위기 등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극복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인간생활의 전부분에 걸친 잘 살기 위한 운동이고 근대화 운동이며 정신혁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새마을운동의 목표

새마을운동은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이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이념으로 생산과 생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서 근면한 인간의 자질을 계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및 사회발전의 저력을 구축하여 자조의 의식을 계발하고 주민의 자생능력을 제고하며 경제 및 사회발전의 저력을 구축하여 자조의 의식을 계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정신과 가치관의 확립

정신계발은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의 이기적·개인적·비합리적·비과학적인 의식구조를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새마을운동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근면·자조·협동정신의 생활화,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의 확립, 합리적·과학적인 생활태도,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문화인으로서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를 목표로 한다.

(2) 새로운 환경과 질서의 확립

새마을운동은 농촌도 도시와 같이 도로를 확·포장하고 현대식 주택과 각종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어촌 전화와 전기보급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 등은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실천되어온 사업들이다. 도시지역에 있어서도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기반정비 사업들이 요청되었다. 도시 새마을운동의 역점사업은 생활환경개선과 사회질서확립 등을 들 수 있다.

(3) 균형적인 경제발전

국가의 근대화와 발전은 계층간·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경지정리, 농업용수시설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부업을 확충하고 노임소득 사업, 새마을공장을 육성함으로써 유희노동력을 생산자원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공한지 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간·간척사업을 추

진하여 잠재자원을 경제자원화 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계층간·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균형적 국가발전을 가져왔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의 가치관과 태도변화라는 정신계발의 측면과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제적 성장과 생활환경개선이라는 물질적 측면을 추구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새마을운동의 특징

1) 실천운동

새마을운동은 나 자신과 근린 나아가서 주민 모두가 다 같이 근면·자조·협동을 기초로 하여 잘살기 위한 구체적 실천운동으로서 국민 각자의 행동강령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은 응용과학의 분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응용과학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한 학문의 생명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은 지역개발의 모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사회개발 학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 학문의 중요한 기본적 특성 중의 하나는 실천과학이라는 점이다.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개발 학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운동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2) 마을단위의 경제활동 전개

새마을운동은 일정한 지역사회수준에서 이루어진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해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와 욕구에 바탕을 둔 구체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운동이다. 새마을운동 도입 초창기에는 국가수준에서 전개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새마을운동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지역특성화를 바탕으로 전개되면서 새마을운동의 특성도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90년대 중반 한국사회가 국제구제금융(IMF)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새마을정신이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첫째, 지역경제 보호운동으로서 지역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전개, 지역특산물애용, 우리 농산물 애용, 해외여행 자제 그리고 하루 1,000원 아끼기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둘째, 근검·절약, 저축운동으로서 사치, 과소비추방, 김소한 명절보내기, 동전모우기운동, 상설알뜰 마당운동,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그리고 일하는 보람상 시상 등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직장 새마을운동을 활성화로써 월별 직장 새마을 추진과제, 직장 한가족 비교평가 발표회, 성공기업 및 활동사례 발표회, 직장여직원회 활동사례 발표회 그리고 시범 직장 육성 등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수준 또는 직장단위에서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수

준에서 새마을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경제위기 극복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지방자치의 실천운동

새마을운동은 나 자신과 근린 나아가 주민 모두가 다 같이 근면·자조·협동을 기초로 하여 잘살기 위한 운동이다.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는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추진주최와 추진단위에 있어서 양자는 다 같이 지방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였으며, 이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추진단위 역시 양자는 동일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주민 스스로 자율과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추진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터전으로 가꾸어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자는 이념이나 기반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지방자치를 구체화하는데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 국가발전의 총체적 운동

새마을운동은 지난날 우리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분발하여 국가발전을 신속히 이룩하려는 민족의 대역사이다. 새마을운동은 기초적인 지역사회발전으로부터 광역적 발전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 발전원리를 실천하는 운동이며, 지역단위의 모든 사람을 융합하고 결합시켜 살기 좋은 고장과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화합과 균형의 실천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야기되기 쉬운 중앙과 지방의 대립,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 전체와 부분의 괴리를 해소하고 조정하는 가교적이고 촉매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Ⅲ.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은 제1기(1970년~1979년), 제2기(1980년~1989년), 제3기(1990년~1999년), 제4기(2000년~2009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그 추진경위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목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김병섭, 2009; 김정호, 2007; 신윤표, 2007; 김용선, 1977).

1.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1) 제1기(1970년~1979년)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태동되어 그 이듬해에 걸쳐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진

행되었으며, 1971년은 실험기라고 할 수 있다. 1972년은 기초점화기이며, 1973년은 새마을운동을 종합 체계화시킨 기반확립기로 성격 지을 수 있다. 1974년부터 76년까지 3년간은 자조발전단계로 1974년부터는 관에서 점화하고 자극하던 단계를 벗어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대 되었다. 1975년에는 증산운동, 근검운동, 인보운동 등 3대 운동의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4대 시책사업이 선정되었다. 1976년에는 도시 새마을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1977년부터는 자립완성단계이다.

(1) 기초마을

1970년대 초반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참여도가 낮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마을 사업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전국 3만3천여 개 마을을 기초마을(1970~1973년)로 지정하여 주요사업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부사업은 생산기반사업으로 하였다. 지원 사업은 농촌도로, 소하천 정비, 위생급수, 농업용수, 공동이용시설이고 자력사업은 부역 사업, 지붕 개량, 퇴비 증산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 '빈곤을 자기의 운명이라 한탄하면서 정부가 뒤를 밀어주지 않아 빈곤 속에 있다고 자기의 빈곤이 타인의 책임인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는 농민은 몇 백년이 걸려도 일어설 수 없다. 의욕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돈 낭비이다. 게으른 사람은 나라도 도울 수 없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새마을 운동 기간 중 계속해서 대통령을 통해 전달된 대 농민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대한 사업규모이므로 사업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는데 먼저 1970년 9월26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각 도별로 읍·면·당 1명씩 총 1,473명을 선발하여 우수부락을 견학하게 하였다. 견학지에서 지도자의 활동상황, 주민들의 자조의욕, 사업추진 실적을 직접 살펴보고 자기 부락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이용, 도움이 되게 하였으며, 견학 후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부락뿐만 아니라 인근 부락까지 순회하면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헌신적으로 지도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1970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겨울철 농한기에 전국 33,267개 모든 행정리·동에 대하여 시멘트 335포씩 똑같이 지원하여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스스로 힘을 다한 마을을 지원한다. 이동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온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얻어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뒷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농경지를 정리하고 마을 안에 들어오는 길을 넓히며, 하천을 바로잡고 제방을 보수하는 등 국토를 알뜰히 보존하고, 담장을 바로잡고 퇴비장을 만들며, 메워진 하수도를 파내고 정리하여 축대를 보수하고, 공동 우물이나 빨래터를 만드는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량이나 암거를 가설할 곳, 토관을 놓을 곳, 하천제방과 축대를 쌓을 곳이 많이 생겨나므로 부락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상과 같은 구조시설 등에 돈이 많이 들어 스스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부지원이 미치게 되

며, 새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에 있어 구조시설물에 가장 필요한 시멘트를 적기에 지원하여 줌으로서 온 마을에 자조정신을 불려 넣어 스스로 하고자 애쓰는 힘을 정부가 도와준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요한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자조정신 함양이며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단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조성, 주민정신 자세의 전환, 일선지방 행정기관과 주민의 간격 없는 대화의 광장 마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전개가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되어 철저한 준비가 되지 못하였고, 상부의 시급한 명령과 실적위주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여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시멘트의 획일적인 배정, 도시지역의 사업추진에 많은 난점, 원거리 운반, 기술 공무원의 부족, 시멘트 수송 수단의 부족과 시멘트의 겨울철 장기 보관,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신적 자세가 불비, 지도자의 부족 및 지도능력 함량 미달, 사업에 대한 지방민의 지나친 욕심, 일부 지방민의 비협조 또는 소극적 추진, 정부당국의 행정지도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197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추진되었으며 71년의 실험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도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사업추진은 마을 지도자와 이동 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추진하되 농촌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협동 단결하여 자발적으로 하고 힘에 겨운 부분만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 해나가도록 하였으며, 72년에는 71년의 사업 실적을 비롯하여 마을에서 지금까지 스스로 이룩한 사업과 주민들의 단합과 의욕, 그리고 마을지도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체 이동의 반에 해당하는 16,600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새마을사업을 중점지원 하였다.

선정된 각 마을에는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씩을 공급(약 180,000원)하였다. 사업비는 316억 원으로 정부지원이 36억 원(국비 20억 원, 지방비 16억 원), 주민 부담이 280억 원(자체 자금 52억 원, 노력 부담 211억 원, 기부금 및 현물회사 17억 원)이었다. 그리고 총 참가 마을 수는 6,108개의 자진마을을 포함하여 22,708개 마을이 참가하였다.

이밖에도 새마을 생산 및 소득 증대 사업과 새마을 교육·홍보·보건·조림·건설·농어촌 전화·가내 공업센터 육성·체신 사업 등 새마을 사업 지원에 총 829억 원이 투입되었다.

대상부락의 선정기준은 첫째, 시멘트 및 주민자력으로 하는 사업(마을안길확장, 하수구, 공동빨래터, 주택환경개선, 소하천 제방, 사방조림, 위생우물, 푸른 마을 가꾸기)이 75%이상 완성된 부락, 둘째, 농로, 지붕개량사업이 80%이상 이루어진 부락, 셋째, 마을금고 조성실적이 뛰어나고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부락, 넷째, 농촌진화사업을 이룩하였거나 75년 내에 가능한 부락(확정계획이 있는 곳)이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실적은 총 162개 사업으로서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 63개, 새마을 교육 48개, 새마을 홍보 29개, 기타 38개 총 359개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정신을 길러주며,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며 생활태도를 합리화 시키며 생산과 소득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2) 자조마을

기초와 자립마을 중간 정도인 자조마을은(1974~1976년) 주사업을 생산기반사업으로 하고 부사업은 소득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마을간 도로, 농업용수 시설, 소득구심사업, 위생급수, 마을간 소하천 정비, 자력사업은 새마을광장, 협동영농, 주택개량이다.

1974년 총화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모든 마을과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마을지도층(종교, 언론, 학계)에게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1975년에는 새마을운동의 도약의 해로 정하고 3대 운동으로서 증산운동, 근검운동, 인보운동으로 정하고 4대 시책사업으로 소득사업, 노임사업, 국민교육, 도시새마을 등에 역점을 두었다. 1976년에는 본격적인 범국민 참여운동으로서 도시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고, 3대 운동(증산, 근검, 인보) 및 4대사업(소득증대, 국토가꾸기, 도시새마을, 국민교육)이 지속적인 확대 추진되었다.

자조마을은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쌀의 증산 운동에 중점을 두고 용수 확보와 경지정리, 보은 못자리 설치, 지력 증진, 병충해 방제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통일벼를 확대 재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익성과 시장성이 큰 경제 작물의 적지, 적작 원칙에 따라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생산, 처리, 가공, 유통을 종합 지원하고, 수출작물의 생산을 증대시켜 수출신장에 기여하도록 하며, 농어민 자조정신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3) 자립마을

자립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새마을사업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마을(1977~1979년)로서 주사업은 소득사업이고 부사업은 문화복지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소득구심사업, 미진한 기초 환경개선사업이고 자력사업은 표준주택사업, 새마을공장, 전화 도입 등이다. 자립마을은 범민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 조성, 도시녹화, 뒷골목과 가로 정비,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청소, 생활오물분리수거, 시장새마을운동전개, 도시환경개선, 낙후지역개발 등 10대 구심사업을 전개하였다.

2) 제2기(1980년~1989년)

제1단계의 관주도형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이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던 단계이다. 제2단계의 기본 특징은 관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꾼 데 있다. 이러한 성격변화는 1980년 10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을 정권적 차원을 떠나 국민운동의 차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추진"하라는 순시가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그 해 12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고, 이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그 동안 관이 주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모든 사업추진조직을 준정부적·관료적 조직으로 만들게 되어 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고, 둘째, 국민의 자발성이 떨어졌으

며, 셋째, 관주도의 실적주의 사업은 지역별 동기유발이나 사업연구가 부족하여 외관적인 사업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5공화국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발족시켰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의 5대 중점 시책을 ①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② 새마을국민교육의 강화, ③ 새마을복지기반의 확충, ④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⑤ 공장새마을운동의 내실화에 두었다. 제1단계의 5대 시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지역개발운동의 성격에서 벗어나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중앙 및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 계통적 조직을 갖추었다. 게다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도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원하에 수행했다. 또한 1980년대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의 실현을 이룩하는 데 새마을운동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가 새마을운동 성패의 관건이라고 표방할 정도로 1980년대 새마을운동 역시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

농어촌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는데,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문화복지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농로개설 및 확장, 영농의 기계화기반 구축과 농수산물유통사업을 벌였고, 저소득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등소재(高等蔬菜), 인삼, 축산, 가내부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제1단계에 이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불량주택을 문화주택으로 개량했다.

19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특히 '86 아시아 경기대회', '88 서울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도시새마을운동에 주력하여 전개되었다. 두 행사에 대비한 올림픽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질서 캠페인, 도시민 건전생활과 인보운동(隣保運動), 소비절약운동을 벌였다. 또한 도시생활환경 개선에도 주력하여 거리환경정비 및 도시색채환경개선사업 등 전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했다. 공장새마을운동은 공장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13개 시·도에 구성되어 그 아래 56개의 지부를 두고, 그 아래 1만 5,000여 개 단위공장이 참여했다(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3) 제3기(1990년~1999년)

이 시기의 새마을운동은 1988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국회가 국정감사와 5공비리 청문회를 시작하게 되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른바 '새마을 비리'가 폭로되자 새마을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편하고 순수한 민간주도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재추진해 나갔다. 1990년대 새마을운동은 그 목표도 '잘살기 운동'에서 '함께 잘살기 운동'으로 재정립하여 더욱더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 마을간 도로·교량 개설, 농로개설, 도로보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줄여나가기 등을 추진했고, 이외에도 일 더하기, 근검절약, 독서운동, 환경보존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1998년 12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였다. 주요 내용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을 지향 이념으로 하며, 경제난 극복과 공동체사회 구현을 목표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실천 원리로 하여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나라 살리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건설,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 민족통일 준비, 공생공영의 세계화 운동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생활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활·의식 개혁운동, 민간 사회안전망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활성화 운동, 통일 및 국제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4) 제4기(2000년~2009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새마을운동은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따라 크게 정보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새마을운동도 인터넷새마을운동으로 확대 발전되고 이를 통하여 농촌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01년 6월 경북 성주군 도흥이 정보화시범마을에서 인터넷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갖고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인터넷으로 모든 생활과 산업이 연계된 e-커뮤니티를 모델화시키려고 한다.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농촌의 CIO로 육성하며, 전자상거래의 일상화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보격차 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김정호, 2007: 74).

또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동시에 일회적이거나 시혜적인 성격을 갖는 물적 지원 중심에서 인적 교류 및 상호 협력 중심으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현황을 보면 1970년대 16건, 1980년대 0건, 1990년대 32건, 2000년대 466건으로 사업건수가 급증하였으며, 동시에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물적 지원이 약 28%, 인적 교류가 약 40%, 상호 협력이 약 32%로 나타나고 있다(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2009).

베트남의 경우 한국 국제협력단이 지난 2001년~2002년 현지7개 마을에서 벌인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 이를 모델로 올해부터 5년간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베트남식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한국 국제협력단 지원으로 2002년~2005년에 캄보디아와 라오스, 네팔에서 전파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역시 정치적으로 혼란한 네팔을 빼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특히 라오스의 경우 전국적인 추진모델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중국 공산당이 정식 채택한 신농촌 건설운동도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1974년~2004년까지 30년간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연수원을 다녀간 외국인은 133개국 41,61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주로 우리나라에 외국의 관료, 학자들인 엘리트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현

장을 견학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다만 말레이시아 연수원에 교관을 파견한다든지 선교사들이나 독지가들의 개인적인 보급 활동이 다소 있었다.

2. 평가

1) 새마을운동의 성과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정부의 체계적 지원,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 봉사, 국민의 자조 의식과 주도적 참여,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정신교육의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촌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정주, 2009: 13-18)

첫째, 낙후된 농가의 소득 증대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도시가구 소득은 연평균 20.5% 증가한데 비해, 농가소득은 29.2% 증가하여 도시가구소득보다 농가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70년에 67%였던 것이 1977년에는 102%로 도시가구소득을 초월하였다.

둘째, 농가의 소득 증대로 농촌의 빈곤탈피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농가소득은 1970년 255.8천원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2,227.5천원으로 연평균 27.2% 증가하였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연평균 25.8% 증가하였고, 농외소득은 30.9% 증가하여 1970년부터 1979년 사이에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0년에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75.9%를 차지하고, 농외소득은 24.1%를 차지하였으나, 1979년에는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68.7%, 농외소득이 31.3%를 차지하였다.

셋째, 농촌도로가 개설되어 농업 및 생활인프라가 구축되었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하고 먼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 농촌도로는 새마을가꾸기사업 44,227km, 농로개설사업 14,883km 그리고 기타사업 2,687km 등 총연장 61,797km를 구축하였다.

넷째,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되어 농가소득증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 농로개설, 교량개설, 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었고,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간이급수, 하수구시설이 개선되어 주거환경여건이 개선되고, 농어촌전화, 마을통신, 자석식전화시설 설치로 지역의 정보화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마을회관, 소도읍가꾸기 등의 사업으로 쾌적한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연도별 새마을운동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10년간 총 355,512마을, 1,125,176천명이 참여하여 마을당 3,16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마을은 1980년에 35,695개소가 가장 많았고, 참여 연인원과 마을당 참여 연인원은 1978년에 각각 270,928명과 7,4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건수는 10년간 총 13,106천 건으

로 연평균 8.6% 증가하였으며, 마을당 사업비는 총 95,350천원으로 1971년에 367천원에서 1980년에는 18,854천원으로 54.9%증가하였으나 1979년에 가장 많은 사업비(20,904천원)가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섯째,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에게 ‘하면 된다’, ‘잘 살아야 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부여하였다.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전근대적, 비합리적 체념과 나태를 탈피하며, 지역의 과제를 이웃과 더불어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의욕과 실천을 고취하여 국민들은 발전과 개발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극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새마을운동 도입 초창기에는 국가수준에서 전개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새마을운동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지역특성화를 바탕으로 전개되면서 새마을운동의 특성도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지방자치를 구체화하는데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한국사회가 국제구제금융(IMF)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새마을정신이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지역경제 보호운동으로서 지역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전개, 지역특산물애용, 우리 농산물 애용, 해외여행 자제 그리고 하루 1,000원 아끼기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또한 근검·절약, 저축운동으로서 사치, 과소비추방, 검소한 명절보내기, 동전모우기운동, 상설알뜰 마당운동,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그리고 일하는 보람상 시상 등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는 새마을중앙회가 ‘SMU(Saemaul) 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공동체 가꾸기를 기본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2) 새마을운동의 한계

1970년대에 시작되어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큰 성과를 가져온 새마을운동은 현시점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이정주, 2009).

첫째, 과거 정부주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새마을운동을 우리나라의 의미있는 지역사회개발 모델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관을 지어 보는 시각이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었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 만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여 새마을운동을 평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과를 왜곡되게 보는 관점이 있다.

둘째, 1970년대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그 당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에서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관주도 활동으로 국민

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주도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1980년대 12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발족하고 이어서 산하 13개 시·도에는 지부를, 각 시·군에는 지회를 설치하여 민간주도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민간기구의 조직과 권한이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민간주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셋째, 농업과 농촌 중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당시 농촌이 대부분이었고,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가장 큰 과제였던 만큼 농업과 농촌중심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도시새마을운동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자체도 70년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오래되고 낡은 것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넷째, 소득증대와 경제개발 중심의 운동이다. 시대적 여건상 국민들의 빈곤탈피가 가장 큰 목표였던 시기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도 생산기반 확충, 영농기법 개선,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 어렵지만 소득증대와 경제개발 등은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었던 면도 있다.

다섯째, 차세대 리더양성이 부족하다.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마을리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학들은 지역사회개발학과나 지역개발학과 등 새마을인접학과를 개설하고 새마을 리더를 양성하였다.²⁾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새마을리더의 육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IV. 한국새마을운동의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40여 년간 전개되어 온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다. 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민적 총화정신을 신생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전파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국제화가 요구된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지방자치와 상호작용성을 높이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상호신뢰와 공존,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ODA 등을 통한 새마을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화하여야 한다.

2) 한 때 영남대학교의 경우 4년간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새마을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1. 그린새마을운동

그린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이 2000년대 들어서 매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들을 내걸며 환경문제에 특히 전념해 오며 축적한 경험의 산물이다.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새마을운동 환경부문의 활동을 보면 환경운동에 관련된 경험의 부족으로 주로 초보적인 차원의 환경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10년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다(최재송, 2010).

그린새마을운동은 요약컨대 새마을운동이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전념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새마을운동의 환경운동 활동은 이전에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보전운동, 친환경운동, 환경가꾸기운동, 친환경생활화운동 등의 이름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린새마을운동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산림은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 외에도 직접적인 가치로 목재 생산을 비롯해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부산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중요하다. 유흥지, 연도변·생활주변 녹지 공간을 활용한 녹지조경을 비롯하여 특성있는 가로수 거리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벽면녹화사업, 수벽조성사업, 장미식재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산림 내 휴양 공간 조성, 아파트 녹지조경, 범시민나무심기 운동인 가정 식수 등 중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화하고 가족단위 또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물품 및 금전적 지원자를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새마을단체는 강 및 물 보호 및 절약을 위해서 물 사용에 대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새마을단체는 가구당 물 저금통 설치, 수질정화 식물 시범재배,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제작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하여 양치질시 컵 사용, 설거지통이용, 양변기 벽돌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 페트병을 수거해 모래, 자갈, 물 등을 넣어 각 가정에 보급하고 물 절약 실천 교육 및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절수기기 전시 및 홍보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새마을단체는 강·하천 살리기 교육·홍보활동을 적극화하고 강·하천 살리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하천 정화 및 장마철 기간에 쌓인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계 보전 차원의 풀베기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가칭 저탄소 녹색시범마을을 조성한다. 녹색시범마을은 고에너지와 고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저탄소 배출을 통하여 친환경적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녹색시범마을의 조성은 저탄소 배출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쾌

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녹색시범마을은 단순한 환경문제의 해결 창원을 넘어 지역 주민과 나아가 인류가 행복 추구의 주체가 되며 지구촌을 새롭게 바꾸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전환기의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시범마을은 에너지 절약에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저에너지 배출을 위한 공동의 아이디어로 보다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녹색시범마을은 새마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저탄소 녹색마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즉 지역의 지리적·사회경제적·문화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새마을단체의 선호에 맞는 시범마을을 가능하게 해준다.

넷째, 생활 속의 녹색화를 지속화 한다. 녹색생활은 우리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 가정에서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절전형 멀티탭 사용, 녹색제품이용, 불필요한 조명크기의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고, 반찬 적정량 만들기, 친환경 식단체 운영, 남은 음식 포장해가기 캠페인, 퇴비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속도 운전 (60~80 키로), 급제동, 급출발 안하기, 엔진 공회전 안 하기 등을 실천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와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녹색새마을운동은 캠페인 중심의 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향후 새마을운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운동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은 녹색생활 시민의 주체화, 녹색소비의 제도화, 녹색 소통혁명(네트워크)의 구축, 지역사회 단위의 실천운동, 녹색생활 문화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최용호, 2010). 또한 녹색새마을운동은 결코 일과성 활동이 되지 말아야 하며, 향후 글로벌 과제인 환경보호의 맥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녹색새마을운동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새마을연수원이나 새마을운동 교육의 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많은 계층의 국민들에게 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새마을운동이 세대를 거쳐 계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의 양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종전의 독자적인 새마을운동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이라는 좀 더 공통되고 글로벌화 되어 있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다양한 환경 NGO들과의 제휴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최재송, 2010).

2.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의 연계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은 민주정치발전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자발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발전의 관건은 토론에 의한 관용과 양보의 합의정신이다.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참여하여 참여한 사람들의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이고 정치발전에 대한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을 다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기능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대방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새마을운동의 장점을 더욱 조장함과 아울러 새마을운동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결함을 보전하고 시정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새마을운동 역시 지방자치의 취지와 원리를 더욱 확대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갖는 한계성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으로부터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수동적 소극성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업계획을 행정에 제시하여 행정의 호응을 받으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을 연계시키고 접목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주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지방자치의 자기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의 겨냥하는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입장에서 본 공권력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긍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보다 활발한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 필요성으로써, 동일지역 안에서 같은 주민이 담당하는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이 일체가 되어 기능하게 되면 주민의 정신적 부담이 작아지고 노력한 효과는 커지게 되며 추진하는 과정도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의 연계는 지역발전의 능률성에 있다.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이 강한 연계성을 이루면서 전개될 때는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용이하고 따라서 지역개발의 효과는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국가의 입장에서 본 필요성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다 같이 긴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이 강한 결속과 유대를 가지고 전개됨으로써 국가 전체로서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이의 수렴을 통한 국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

새마을운동이 순수한 NGO특성을 지니면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은 사회개혁의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특성에 의해 자율성과 개혁지향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새마을운동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로 인하여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마을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높은 신뢰를 형성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자발적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들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한 규범, 가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난다. 높은 연결망을 갖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강한 사회적 규범과 믿음은 규칙과 관습에 순응하도록 하고 공식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박혜원, 2006: 30). 또한 신뢰에 기초한 상호호혜 및 협동의 가능성도 커진다. 신뢰, 협동, 참여, 화합, 배려, 호혜와 같은 시민사회 가치규범들이 충만한 곳에서 연대의 범위와 깊이가 증대되고 교환행위가 효율화되며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김옥진, 2008: 36).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새마을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유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사회적 자본은 특정한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새마을중앙회에 사회자본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자본센터는 사회적 자본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본 간 협력과 조정, 시민과 정부, 경제 등 다양한 제세력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교육, 정보제공 등과 같이 사회적 자본 형성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새마을단체의 활동에 의해 보다 잘 생성·발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단체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구성원 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어 사회화합이 증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형성된 사이버 공동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특성을 가지며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허용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모이고 함께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주민의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새마을단체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지역의 공공시설들이 참여의 장으로 들어올 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시민적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최종덕, 2007: 138)는 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마을단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란 기술적 전문가에 의한 사회공학적 연구나 정책이 아닌, 실천을 통해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고 쌓여가는 것이다. 새마을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구성원 간에 신뢰하고 상호협력하며, 시민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유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국가 및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관련되고, 행위자들의 자율성에 의한 상호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성태, 2012: 62). 따라서 거버넌스가 잘 구축된 단체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도 용이하다.

4.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국적기업의 생산과 판매,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증가, 해외여행, 유학, 문화와 정보의 국제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한국 근대화를 촉발시킨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과 실천운동으로서 한국사회의 가난과 위기를 극복해 준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산업화과정에서 터득한 경험과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와 지원을 후진국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새마을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공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5년 현재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등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연해주에 새마을 센터를 개소하여 새마을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문화교류, 농사일, 노후시설개축 및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구미시 새마을단체 등에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을 중심으로 도로, 수로(水路), 학교, 진료소, 우물파기 등 노력봉사와 교육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미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새마을운동은 후진국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과도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범사례 발표와 현장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지구촌이 다함께 공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새마을 사업을 적극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마을 운동 국제화를 위한 기금확보방안, 새마을 운동 해외 수출 및 홍보방안, 새마을 운동 국제화 행사추진, 새마을 운동의 국제브랜드화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새마을운동세계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새마을 운동 추진본부를 상설기구화하고 이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전세계적인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조직망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해외수출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기왕이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희망교민이나 선교사들을 선발하여 전문훈련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물론 직원들의 상주나 대학생들과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파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전문가로 훈련시켜 ODA(해외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접목된 새마을운동의 국제 전문가로서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현지국의 언어와 사정에 밝은 전문가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신무장과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외에 새마을 운동 전문가 및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의 대학에서 새마을 운동 국제대학과 같은 학과를 설치하거나 새마을 농민사관학교 및 새마을 운동 아카데미와 같은 정규 및 비정규 과정을 설치하여 새마을 운동 국제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마을 운동 국제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새마을 운동 기념관, 도서관, 해외수출인력양성, 국제행사, 홍보, 새마을 운동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새마을 운동 국제적 수준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 갈 것이다. 또한 국제적 조직망과 교류 협력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새마을 운동 국제화를 위한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하고 새마을 운동의 국제화를 통해 타국의 연수생 유치 및 프로그램 수출을 통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넷째, 새마을 운동의 국제화와 해외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위상이 제고되어 해외빈곤, 가난한 저개발국가의 보급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위해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을 수출하거나 새마을 운동 성공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새마을 운동 시범(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새마을 운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국제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소개책자를 만들어 보급하고 새마을 운동 역사기념관 새마을 운동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서 외국인에게 종합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대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새마을 운동을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국제행사가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국제사회에 새마을 운동을 지역개발 발전모형으로 정립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새마을 운동의 중주국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 운동 관련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새마을 운동 국제박람회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 성공사례를 공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마을 운동 역사기념과 테마파크에서 각종 국제전을 열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자국의 경제개발 모형으로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해 가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전국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새마을운동을 그들이 배워가지고 자국의 개발방법으로 적용해 우리나라가 성취했던 경제성장을 그들도 성취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내 농촌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 들어 멈춘 상태로 외국인들의 수요는 꾸준하지만 마땅히 보여줄 만한 시범 마을이 부족한 편이다. 앞으로 21세기형 지역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중국의 신농촌 건설운동 등에 그 위상이 밀릴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하고 해외 수요에 대응해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마을단체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국적기업의 생산과 판매,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증가, 해외여행, 유학, 문화와 정보의 국제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한국 근대화를 촉발시킨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과 실천운동으로서 한국사회의 가난과 위기를 극복해 준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V. 결 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민족적 자각운동이며 근대화운동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운동은 낙후된 한국의 농촌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정치적 편향성과 관주도로 이루어져 국민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적 발굴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이념적 논리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시대적·사회적 상황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위에서 제시한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 발전방안을 부가적으로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을 정치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크게 10년 단위로 하여 네 가지 단위로 구분해 보았다.

‘70년대에는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자’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새마을운동은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일’, ‘대한50년, 우리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으로 한강의 기적’, 또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된 사업’으로 지칭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초기 새마을운동은 주민 자발적 운동이라기보다는 관이 중심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철학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전개되어 농촌 근대화에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가져왔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새마을 지도자 등 민간조직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주도의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변모하면서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의 역할이 자원봉사의 기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지역공동체 가꾸기를 기본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새마을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첫째, 새마을운동의 녹색화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숲 가꾸기 운

동을 활성화하고, 수자원 관리를 효율화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자세를 자져야 한다.

둘째,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는 상생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성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새마을운동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결함을 보완하고 시정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며, 새마을운동 역시 지방자치의 취지와 원리를 더욱 확대시키는 동시에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새마을운동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화 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시민이 참여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신뢰의 터전을 형성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새마을단체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 간의 신뢰, 유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며 시민사회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는 산업화과정에서 터득한 경험과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와 지원을 후진국들에게 돌려두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새마을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공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종무(2009) 초기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사점,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연구」.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 김남선(2001).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제 전략」, 경상북도.
- 김대연(1997). 농촌부녀새마을운동의 계절적 활동 모형 연구. 「새마을운동학술논문집」,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 김성태. (2012). 「관광특구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육진. (2008).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사회조직화전략 재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31-52.
- 김문규(2000). 새마을운동 30년 자료집. 새마을운동중앙회.
- 김병섭 외(2009). 한국의 치산녹화 성공사례 분석, 한국행정학회 연구보고서.
- 김안제 공저(1991).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 김육진 (2008).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사회 조직화 전략 재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31-52.
- 김유혁(2000). 「한국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21세기 새마을운동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구미시.
- 김용선(1977). 1976년도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산림」. 132('77.1). 산림조합중앙회.:41-50.

- 김정호(2007). 경북 농촌새마을운동의 시대적 특성과 향후 과제,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연구」.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3:59-78.
- 박혜원(2006).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집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진광(2007).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93-112.
- 신운표(2007).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론. 서울: 대영문화사.
- 장경근(2006). 정부와 국민운동과 관계분석을 통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방향 모색,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희(1991).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2.
- 정갑진(2006).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와 과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 정우열(2011). 나라품격 높이기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새마을포럼 학술토론회」. 구미시·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55-178.
- 정우열(2007).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구미 정책연구 논문집」, 구미시.
- 정우열(2001). 새마을단체의 바람직한 운동방향.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제와 전략」. 경상북도.
- 최용호(2010). 녹색새마을운동의 과제,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연구」.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6: 1-28.
- 최종덕. (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9(4): 135-161.
- 최재송(2010). 녹색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본질과 내용,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연구」.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6: 47-80.